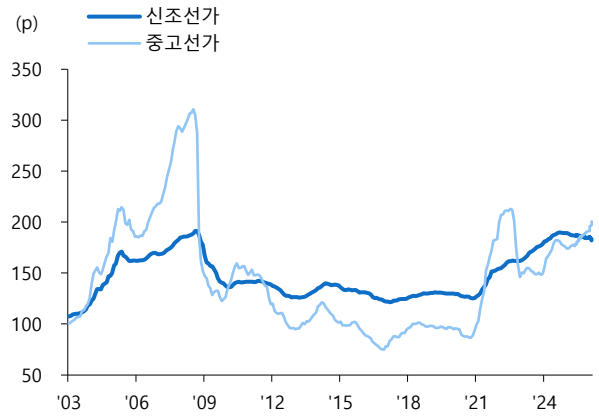
2026. 3. 5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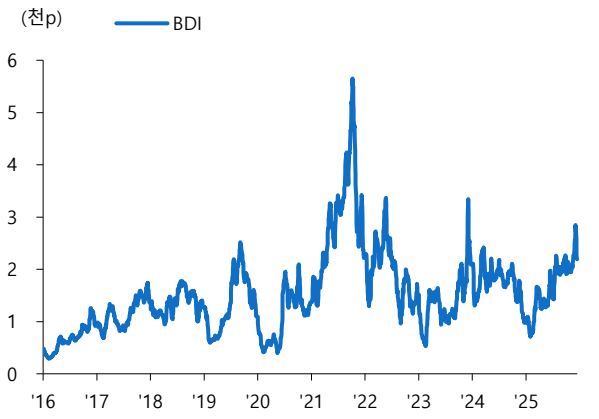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1p (-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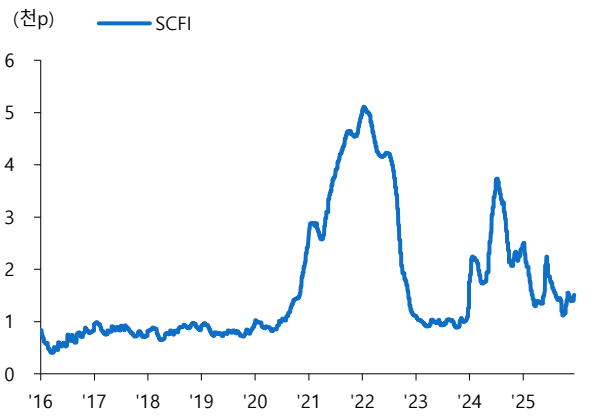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2.13 기준) 482.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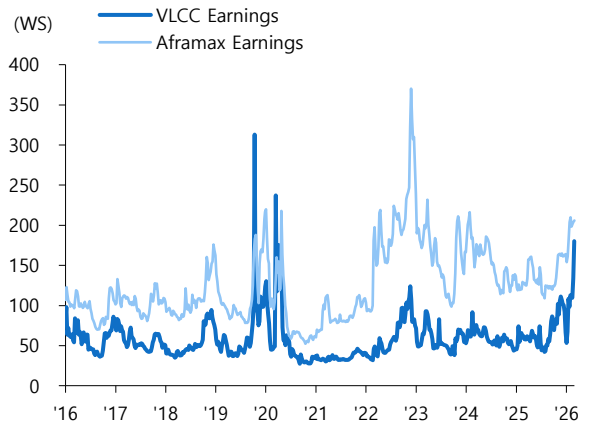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242.0p (+5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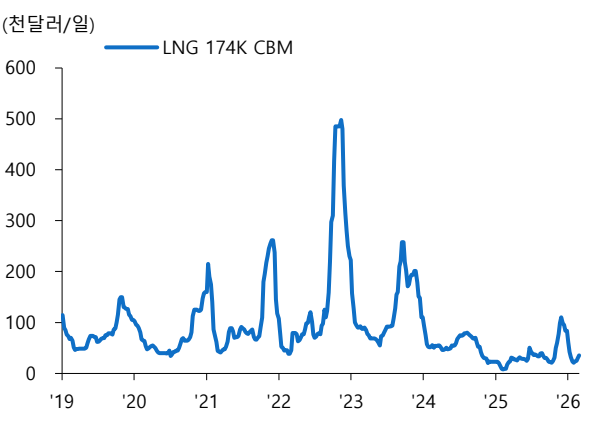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333.1p (+81.6p WoW)



VLCC Spot Rate 180.1WS (+45.9p WoW)



LNG Spot 운임 35.5천달러 (+5.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QatarEnergy declares LNG force majeure (Upstream) https://zrr.kr/UkKbup

QatarEnergy가 드론 공격으로 시설이 타격을 받은 뒤 LNG 구매자들에게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North Field 생산을 중단했으며 연간 7,700만톤 규모 생산 차질로 유럽 가스 가격이 급등했다고 보도됨. 카타르 LNG 수출의 약 80%가 향하는 아시아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으로 예상되며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질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LNG 공급 약 1,200억㎥가 제한되고 있다고 전해짐. 한편 시설 가동 중단이 15일 이상 지속될 경우 2026년 글로벌 LNG 생산이 약 4.3%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고 알려짐.

李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AI·원전·조선' 아세안 확장 (뉴스 1) https://zrr.kr/fwglsH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AI · 원전 · 조선 · 방산 · 에너지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보도됨. 싱가포르와는 FTA 개선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과학기술 협력, 공공안전 분야 AI · 디지털 기술 협력, 지식재산 협력, 환경위성 공동활용, SMR 협력 등 5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전해짐. 특히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을 토대로 한국 방산기업의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조선 · 원전 · 자원 분야 패키지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알려짐.

한화오션, CPSP 최종 제안서서 양국 산업 협력 강조...2032 년 첫 잠수함 인도 자신감 (서울파이낸스) https://zrr.kr/jBni3F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에 대한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한화오션은 잠수함 인도 일정과 산업 협력 확대를 핵심으로 한 제안을 강조했다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2032년 첫 인도와 2035년까지 4척 인도 계획을 제시하고 철강 · AI · 우주 등 산업 투자와 함께 2026~2044년 연평균 2만5천 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고 전해짐. 한편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독일에 각각 6척씩 잠수함을 분할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고 알려짐.

'마스가' 대표주자 한화오션... 함정 기술력으로 K-해양방산 이끈다 (서울경제) https://zrr.kr/36hPxM

미 해군 7함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함정 건조 시설과 자동화 · 스마트 야드 기반 생산 시스템 등을 점검하며 K-해양방산 역량을 확인했다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미 해군 MRO에서 전투함 MRO, 나아가 함정 신조까지 사업 영역 확대 구상을 설명했으며 미 해군 측도 빠른 납기 능력과 함정 건조 역량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짐. 한편 한화오션은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과 구축함 건조 경험을 기반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기대감을 높이는 가운데 수상함 생산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짐.

한화필리조선소, 美 캠퍼스 필리와 인력 확보 '맞손'...정착형 조선 인재 육성 방점 (더구루) https://zrr.kr/xs2ege

한화필리조선소가 필라델피아 비영리단체 Campus Philly와 협력해 현지 대학생 대상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를 추진하며 조선소 인지도 제고와 인력 확보에 나선다고 보도됨. 조선소 확장에 맞춰 연간 건조 능력을 기존 1~2척에서 20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견습 프로그램 참여 인원도 증가하는 등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해짐. 또한 미국 노동부 보조금과 지역 대학 협력을 통해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향후 견습생 채용 규모를 최대 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북극항로' 회의 온 러시아 기업연합, 회의장 앞 HD 현대중공업 방문 (오마이뉴스) https://zrr.kr/x86hZj

북극항로 열린포럼과 러시아 국제기업인연합(ICIE)이 울산에서 북극항로 협력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울산 거점항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전해짐. 러시아 대표단은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울산 조선 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북극항로 관련 선박 기술 및 산업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알려짐. 양측은 조선 · 해운 · 에너지 · 물류 분야에서 정보 교류와 공동 연구, 실증사업 추진 등을 통해 북극항로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